

투표는 흙수저들의 '현대판 혁명'

반역의 한국사

민병덕·김현목 지음



“대장이나 정승이 본래 총자가 있겠는가! 시기만 만나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어찌 채찍 아래에서 빼 빼지게 전역만 하겠느냐!”

고려 무신정권 실력자 최충헌의 사(劄)노비인 만적은 1198년 5월 봉기를 꾀한다. 개경 내에 있는 모든 노비와 환관 등을 규합하는 '노비 해방'을 꿈꿨지만 사전에 누설돼 수감되고 만다. 고려 사회의 신분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한 '만적의 반란'은 비록 실패했지만 이후 전민들의 봉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김현목(극작가)·민병덕(경기도 용동중 교감) 공저 '반역의 한국사'는 통일신라 말기부터 구한말까지 발생했던 민란과 군란 등 '반역'을 편년체(編年體)로 정리한 책이다. 궁예, 묘정, 정중부, 배중순, 이성계, 수양대군(세조), 임경경, 광해군, 이괄, 홍경래, 김옥균, 전봉준의 공통 본모는 무엇인가? 흔히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이라 말한다.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와 조카(단종)를 내몰고 왕위에 오른 수양대군을 제외하면 나머지 인물들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들의 거사는 헛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돼 청사(靑史)에 이름을 올렸다.

이 책은 신라·고려시대, 조선시대 전

기, 후기로 시대를 나눠 충실한 논거(論據)를 바탕으로 역사 속의 19개 '반역'에 대해 살펴본다. 저자들은 역사교과서에서 한 줄로 간단히 지나치는 '반역'이 왜 일어났는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고, 진행과정과 결말, 역사적 의의를 자세하게 들려준다.

승려 묘정과 정지상, 백수한 등이 1135년 정월, 반기를 든다. 풍수지리설과 도참사상, 옛 고구려 강역 수복운동을 바탕으로 한 이들은 기운이 쇠퇴한 개경 대신 평양(서경)으로 천도하고자 주장했다. 반란군은 김부식이 이끄는 중앙정부 군대의 포위에 맞서 1년 이상 완강하게 항전을 계속했다. 독립운동가이자 역사학자인 단재 신채호는 “이 사건이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유가의 사대주의가 특세해 고구려적인 기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며 애석해 했다.

묘정, 홍경래 난 등 역사적인 반란은 리더 혼자만의 힘으로 시작된 것은 아니었다. 묘정 난에는 농민들이, 홍경래 난에는 부를 축적한 대상인을 비롯한 농민, 전민들이 대거 참여했다. 임오군란에는 훈련도감 군인 외에 서울 빈민들이 동참했다. 또 19세기는 민란의 시대였다. 1862년 2월부터 이듬해 초까지 경상도·충청도·전라도·황해도 등지에서 72차례 농민항쟁(임술민란)이 일어났고, 갑오년(1894년) 동학 농민혁명으로 이어진다.

저자들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역사 속의 시민들이 추구한 '혁명'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뜻이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에) 반영 되지 않을 때에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보이기도 하는, 선거나 투표를 통해서 시민들

동학 농민혁명 등 '반역'은 비록 실패했지만 역사의 커다란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다. 농민들의 민란은 집권층의 가혹한 수탈에 반발한 생존권 투쟁이었다. 판화가 이철수의 '동학연좌 중에서 - 동군들 떡을 사먹다' (1984년 작)



의 본래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늘의 시대상 역시 '흙수저·금수저' 논란에서 보듯 과거와 닮은 꼴을 하고 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 책은 모순적인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현대판 혁명'인 투표의 힘을 새삼 일깨워준다.

〈책이 있는 마을·2만5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여행의 기쁨=비행기도 기차도 심지어 자동차도 타지 않는 여행자가 있다. 프랑스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 불리는 실행태승은 엔진 없이, 자연과 대등한 조건에서 자연에 그대로 자신을 맡기며 여행한다. 문명이 주는 모든 편리함을 내려놓고 고전적 여행을 삶의 방식으로 삼은 한 여행자의 철학이다. 저자의 철학은 어디든 편하게 갈 수 있지만 어디를 가도 똑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세계, 경탄할 만한 것들이 사라진 시대에 여행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어크로스·1만2000원>

▲인간이 버린 사랑=2008년 '현대시'에 '나무 라디오' 외 네 편의 시를 발표하며 활동을 시작한 아이제의 두번째 시집. 지난 시집에서 영원히 삶에 익숙해지지 못하는 소년의 순수하고 실존의 덧없음을 통감한 현재의 얼굴 양면을 모두 보여주었던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사랑의 배아와 내장까지 다 들여다본 이후의 사랑, 불가능한 것임을 알면서도 사랑으로 뛰어드는 인간의 욕망에 깊이 천착한다. <문학과지성사·8000원>

▲날치기 국회사=70여 년 가까운 헌정사 속에서 일어난 주요 날치기 사건들을 살펴본다. 날치기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을 감수하고 법안 표결을 강행했다는 것은 그만큼 날치기 주체들에게 해당 법안이 가지는 의미가 중대했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날치기를 통해 누가,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똑똑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민들이 진정 경계하고 비판해야 할 대상은 날치기라는 반민주적 행위를 통해 이득을 챙긴 반민주주의자들이기 때문이다. <루아크·1만4500원>

▲한국 자생 풍수의 기원, 도선=한국



풍수지리의 시조로 알려진 도선 국사의 일대기와 그의 업적, 후대에 끼친 영향을 총체적으로 다루는 책. 풍수의 대가로 불리는 저자 최창조는 베일에 싸인 도선 국사의 삶과 후세에 윤색된 각종 자료들을 바로잡고, 도선 풍수 사상의 우수성과 가치를 재평가한다. 남북에 흩어져 있는 도선의 흔적과 방대한 사료를 모두 섭렵한, 도선에 대한 결정판이다. <민음사·3만5000원>

▲과학의 일곱 기둥=과학자들 중에는 과학사에 이름을 올린 사람도 있는 반면 성공의 눈앞에서 포기해야 했던 과학자들도 많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국가, 인종, 종교, 성별 등의 차별과 시대상황, 기득권 체제 등 편견의 벽 앞에서 투쟁하며 절망의 벽을 뛰어넘으려 했던 선구자들이다. 책은 그런 편견과 차별에 맞서 진리탐구를 위해 투쟁한 아홉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저자들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과학자가 가져야 할 자질과 덕목들을 말하고 있다. <사과나무·1만7000원>

어린이 책

▲엄마의 선물=엄마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따스하고 힘찬 응원과 사랑의 메시지, 그리고 그런 엄마에게 아이가 전하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특별한 형식으로 아름답게 담아낸 그림책. 매력적인 그림과 OHP 필름 인쇄의 조합으로 하나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한 독특하다. <상수리·2만8000원>

▲나의 수호천사 나무=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를 중심으로 나무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을 따뜻하게 담아낸 동화. 나무가 따른 사람에게, 사람이 따른 나무에게 응원과 위로를 보내며 삶을 함께 지켜나간다는 큰 틀의 이야기는 작가가 세상을 바라보는 성찰적 시선과 만나 온기 있는 이야기를 전한다. <비룡소·9500원>

▲의적 검은별이 떴다!=조선의 발전을 가로막은 최악의 정치라고 평가되는 세도정치 시기를 다룬다. 그 시기에 자신의 배만 채우는 권세가들과 달리 점점 더 나라



으로 떨어져 버린 백성들을 위해 활약한 의적 검은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모두가 희망이란 것을 찾을 수 없었던 시기에 의적 검은별은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어 주었다. <푸른숲주니어·1만원>

▲밤뚱=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뚱'과 '밤'이라는 소재를 통해 마음속의 두려움을 이겨 내는 이야기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풀어냈다.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느끼는 아이의 심리가 세밀하게 묘사돼 있어 어른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이에게는 거대한 파도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을 잘 보여 준다. <문학과지성사·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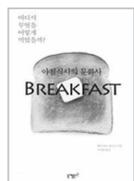
중세시대 아침식사는 천박하고 상스러운 것

아침식사의 문화사

헤더안트 앤더슨 지음

한 때 중고생들에게 따뜻한 아침 식사 한끼를 먹여주는 캠페인이 벌어진 적이 있다. 바쁜 현대인들 중 아침 식사를 거르는 이들도 많다.

미국의 음식 전문 저술가 헤더안트 앤더슨이 쓴 '아침 식사의 문화사'는 인류 역사와 함께 해온 아침 식사를 역사·문화·사회적으로 탐구한 책이다. 아침 식사는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먹고,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좋은 지 해로운 지를 ▲아침식사, 끊임 없는 논쟁의 역사 ▲아침식사, 무엇을 먹을까 ▲아침 식사, 온 가족이 함께하는 한 끼 ▲아침 식사, 집밖에서는 간편한 게 최고 ▲아침 식사, 예술과 세상을 품다 등 5개 섹션으로 나누어 전개한다.

저자는 아침 식사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네 가지 요소로 종교, 무역, 기술, 편리성을 들었다.

과식, 과음 등 육체와 관련된 모든 쾌락이 억압된 중세 시대 금식은 꼭 필요한 덕목이었다. 중세의 도덕론자들은 가벼운 점심과 그보다 조금 충실한 저녁 등 두 끼면 하루 식사가 충분하다고 여겨 가톨릭 교도들에게 아침 식사는 천박하고 상스러운 것이었다. 반면 하위층 농민과 육체 노동자들은 고된 노동의 시간을 버텨낼 에너지가 필요

했고, 이들에게는 아침 식사가 허락됐다.

아침 식사는 아침 식사 전용 공간을 탄생시켜 주택 양식까지 영향을 미쳤으며 미디어는 중산층의 아침 시간을 '세상을 읽는 시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호텔 조식은 왜 뷔페일까, 사형수의 아침 식사, TV 어린이 프로그램은 왜 아침에 할까, 아침 식사의 미래, 전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식사인 콘플레이크 발명 이야기 등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 맛났던 음식 사진을 비롯한 풍성한 자료 사진들이 읽는 재미를 더한다. <2만2000원·니케북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화순군 공고 제2016-341호

화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화순군 고인돌 유적지 문화공원조성을 위한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 공고하오니 이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4월 8일

화 순 군 수

1. 화순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합 계	82,392	-	82,392	100.0	
계획관리지역	64,130	중)18,262	82,392	100.0	
보전관리지역	556	감) 556			
농림지역	17,706	감)17,706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 관리지역	82,392	150% 이하	●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요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 확장하기 위한 용도지역 변경

나. 군계획시설(공간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22	고인돌 공원	문화 공원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일원	64,150	중)18,242	82,392	전남고시 2006-74호 (2006.5.26)	

2)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2	고인돌공원	- 고인돌 공원 면적 18,242㎡ 증가 · 당초 64,150㎡ · 변경 82,392㎡	상위계획과 부합하고 주요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 확장

3) 공원 시설계획 총괄표

시설 구분	시설명	부지면적(㎡)			구성비 (%)	건축면적(㎡)						비고
		당초	증감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당초	증감	변경	당초	증감	변경	
합 계		64,150	중)18,242	82,392	100.0	5,908.18	중)386	6,294.18	8,122.18	중)386	8,508.18	31동
조경 시설	하천, 연못, 목교	2,346	중)650	2,996	3.6	-	-	-	-	-	-	-
휴양 시설	전망대 및 숲, 피크닉장	8,893	-	8,893	10.8	-	-	-	-	-	-	-
교양 시설	연구소, 전시관, 야외공연장, 식물원, 문화원, 체험장 등	23,153	중)3,739	26,892	32.6	5,699.18	중)386	6,085.18	7,913.18	중)386	8,299.18	28동
편의 시설	주차장, 화장실, 샤워실/화장실	2,926	중)6,470	9,396	11.4	223	-	223	223	-	223	3동
도로및 광장	산책로 및 유적탐방로, 돌연광장, 다목적광장	9,496	중)2,114	11,610	14.5	-	-	-	-	-	-	-
녹지 시설	조성녹지	17,336	중)5,269	22,605	26.6	-	-	-	-	-	-	-

2. 관계도시: 계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3. 공람장소: 화순군 도시과, 문화관광과, 도곡면사무소
4. 공고기간: 2016. 04. 08 ~ 04. 22(14일간)
5.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문화관광과(☎061-379-317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